



# 제주, 총인구 70만 명 시대 진입

### 지난 8월 말 기준 70만83명... 전년보다 2607명 ↑ 도 “제주 브랜드 상승 효과... 인구 대응 과제도”

제주도가 총인구 70만명 시대에 진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31일 기준 총인구는 70만83명으로 파악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제주도 총인구 현황을 보면 내국인이 67만9016명, 외국인 2만1067명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260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시 별로는 제주시가 50만7945명, 서귀

포시는 19만2138명이다. 전체 인구 중 72.6%가 제주시, 27.4%가 서귀포시다.

연령 별 인구 비중은 유소년인구(14세 이하) 13.4%, 생산가능인구(15~64세) 70.2%, 고령인구(65세 이상)가 16.4%를 나타냈다.

그 외 제주의 인구 유입 현황을 보면 올해의 경우 지난 7월까지 2353명이 유입됐다. 연령대 별로는 30대(1091명), 40대(953명), 10대

미만(832명) 순이다. 하지만 20대(-1039명), 10대(-515명) 순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와 법무부 외국인등록인구를 합쳐 집계한 것으로, 이달 중순에 공식 발표한다.

제주도 총인구는 1992년 최초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50만명을 넘어섰고, 9년 만인 올해 7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제주 총인구 70만명 진입 시기는 통계청이 2020년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예측한 시점인 2029

년보다 7년 빠르다고 제주도 설명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인구 70만 시대는 제주의 브랜드 가치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인구증가에 따른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과제도 뒤따른다”며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구축, 청년보장제 시행, 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주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이주민 정착지원 서비스 확대 등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다혜기자



## 음주뺑소니 시민들이 있었기에... 사고 현장 목격하자 추격·피해자 구호 앞장

### 횡단보도 보행자 피해사고 경찰, 포상금·감사장 수여

지난 7일 새벽 제주시 광양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행인 3명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사건 범인 검거에 택시기사 등 시민 제보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와관련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시민정신을 발휘해 범인 검거 및 피해자 구호에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3시40분쯤 제주시 이도동 CGV 앞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40대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3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 B(58)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A씨의 차량을 추격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도주하는 A씨를 쫓으며

실시간으로 경찰에 위치 정보를 전달했고, 경찰은 112신고 접수 38분 만에 사고지점에서 약 4km 떨어진 사라봉 인근 주택가에서 A씨를 검거, 또 다른 사고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뺑소니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준 택시기사 B씨에게 신고포상금과 제주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B씨 이외에도 A씨 추격에 동참한 또 다른 택시기사와 피해자 구호에 도움을 준 시민들을 찾아 도민들에게 시민정신의 귀감 사례로 알릴 수 있도록 포상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뺑소니범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차량 동승자인 30대 남성 C씨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추석날 즐기는 율놀이 추석인 지난 10일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민속놀이인 율놀이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 음주운전 현직 해경 입건

현직 해양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제주 해양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이날 오전 0시30분쯤 제주시 도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경위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도영기자

## 국민의힘 수뇌부 선거법 위반 송치

### 김영진 도당 수석부위원장 유세중 허위사실 유포혐의

6·1 지방선거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의 갈날이 국민의힘 제주도당 수뇌부까지 미쳤다.

1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부경찰서는 김영진 국민의힘 제주시도당 수석부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

다. 아울러 양용만(국민의힘·한림읍) 제주시의회 의원이 후보자였던 당시 사무장으로 있던 A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 수석부위원장과 A씨는 6·1 지방선거 당시 양 의원의 상대였던 김성수 민주당 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제주시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던 지난 5월 20일 제주시 한림읍 하나로

마트 앞 광장에서 양 의원을 돕기 위한 유세를 벌이던 중 “김성수 후보는 20여년 동안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한림읍 내 관급공사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독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다.

A씨 역시 같은달 29일 한림읍 하나로마트 앞 광장에서 “김성수 후보가 한림읍에서 진행하는 관급공사 대부분을 수수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취지로 발언,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김성수 후보가 실제 한림읍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수는 최근

6년(2017~2022년) 동안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경찰은 김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일부 혐의만 인정해 송치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황”이라며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 A씨의 경우는 현재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위원장은 “충분한 제보에 의해 이뤄진 발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은범기자

### 과속으로 사망사고 야기 법원 40대 금고 1년 선고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킨 40대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관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0월 8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오른쪽 갓길에 있던 B(3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지만, A씨는 20km 이상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을 당한 B씨는 결혼식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으며, 사고 현장에서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이름다운 노후! 알리는 노후! 행복한 노후!

### ‘업사이클링 환경교육강사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업사이클링 환경교육강사 양성과정은 새활용 아티팩트 개발, 친환경 교육강사, 손인형극을 통한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환경의식을 높이고 업사이클 문화 확산 및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함께 참여할 분을 모집합니다.

교육명	교육일정	모집인원
업사이클링 환경교육강사 양성과정	주2회 / 3시간 14:00~17:00 총 26회 교육	20명

**■ 모집구분**

**■ 신청대상**

- 만60세~67세
- 제주시 실거주자에 한함

**■ 신청기간**

2022. 09. 13(화) ~ 09. 20(화) 09:00~18:00 (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 신청불가)

**■ 신청방법**

제주시니어클럽 (방문접수)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구, 상록회관)

**■ 문의전화 : 064-745-3999**

**■ 지원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기타 : 해당과정 수료 후 노인일자리 참여 기회  
※ 교육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섬나기  
**제주시니어클럽**

### 2022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하는 한라산둘레길 초청행사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하는 한라산둘레길 예코힐링 체험 (국민건강 치유트레킹) 행사를 알립니다.

1. 사업명 :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하는 <국민건강 치유트레킹> 예코힐링
2. 일 시 : 2022년 9월 16일(금) 08:00 ~ 15:00 (7시간)
3. 사업내용
  - 가. 행사일정 : 2022년 9월 16일 (금) 08:00 ~ 15:00 (7시간)  
제주종합경기장 시계탑 집합 후 이동 (버스)
  - 나. 장 소 : 한라산둘레길 천야숲길 1구간 (천야수원지 ~ 181반입구)
  - 다. 이 벤 트 : 전문가와 함께하는 숲 치유 프로그램  
라. 모집인원 : 40명
  - 마. 모집방법 : 공개모집 (선착순 40명 / 참가비 무료)
  - 바. 접수방법 : 전화접수 (064-784-4280), 09:00 ~ 마감 시까지

사. 준 비 물 : 산행복장, 우비, 덧옷, 등산화, 배낭, 간식 (행동식), 물, 기타

아. 제 공 : 버스, 보험가입, 김밥, 간식, 기념품

자. 행사문의 : 한라산둘레길 숲길센터 (064-784-4280)

※ 유의사항 : 이번 행사는 천야수원지에서 출발하여 181반 입구까지 연결된 코스로 행사일정을 감안하여 참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제주 신인가수 수강 장학생 모집

- 지향 : 노래하는 아름다운 나의 인생 아름다운 예술 인생!
- 과정 : 발성-트레이닝-교정-녹음 등 (CD제작안내-별도)
- 대상 : 만20~55세 신인가수 지망 남녀 15명 내외
- 일정 : 22.9.27~12.13, 12주간 매주 화요일 19~21시
- 장소 : 서광로 223 (5F) 농협 앞 실습 홀14소룸2실
- 비용 : 당60만원 전액지원 (단, 카톡&현장오디션 85%이상 인종)
- 특전 : 가수 인증과정, 각종무대/강사/봉사활동 출연 자격
- 접수 : 22.9.5~9.22, 오디션 9.24~25①카톡②현장(개별통지)

2022 협회 하반기 목요지유음악교실 무료 회원 모집(일방기요)

- 대상 : 만60세 이상, 다문화가족, 한일도민 등 20명
- 일정 : 22.10월중~12월말 12주/회, 접수 9.12~9.23
- 특전 : 월회 (힘내라! 셀프 레크리언스 뮤직마터) 제공

대관 : 양호한 시설 공존활용, 4~12인 소모임  
회의+노래+셀프간식 가능, 설비

문의 사무국 ☎064) 900-9706 010-3697-1085

제주특별자치도가수협회장 송광일

### 토 지 구합니다

· 제 주 시 ·

구좌읍 조천읍

조건

- ① 전원주택용 부지
- ② 허가득한 사업부지
- ③ 계획관리지역

베네 건축 베네 하우스

문의 : ☎ 064-723-1105